

마르크스 및 베버주의적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바라본 도시 개념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The Concept of City Seen from a Marxist and
Weberian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Overcoming Eurocentrism and a New Approach to Space

유성희**

사회학 내 하나의 하위 분과인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도시연구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는 비교역사사회학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중심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비서구지역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연구의 부족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비교역사사회학에서 진행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방식, 베버주의적 접근방법을 각각 소개한 뒤, 이들이 가진 한계점을 제시했다. 이후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자는 유럽을 지방화시키는 한편, 공간 자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요청했다. 나아가 비서구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연구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연결사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안들은 한편으로 비유럽도시들에 대한 개성사적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도시 간 결합양태들을 거시적·총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비교역사사회학 내 도시연구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도시, 비교역사사회학, 공간, 유럽을 지방화하기, 연결사, 인문학적 성찰

* 심사를 맡아주신 세 분의 리뷰어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가 나올 수 있기까지 많은 조언을 준 고일홍 선생님과 편집위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hanngl@snu.ac.kr).

1. 서론

근대세계가 출현한 뒤부터 사회학자들은 새로운 장소로서의 도시에 대한 담론적·실천적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예컨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공간적 차이를 구분하고자, 페르디난트 퇴니스는 근대사회를 이익사회(Gesellschaft)의 등장이라고 해석했다(퇴니스, 2010). 퇴니스에 따르면, 이익사회는 확실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여지는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비인격성과 공통의 합리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근대적 도시공간에서 등장한 이익사회는 과거 공동사회(Gemeinschaft)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 — 감정적으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인격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 — 과 명쾌하게 구분된다.¹⁾ 도시 생태학자들은 도시를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로 간주하는 한편, 모든 개인들이 도시 환경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바라봤다(Park, 1915; Park and Burgess, 1921). 이들은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도시 생태 (예: 도시의 주택정책)와 도시문제 (예: 도시 양극화 및 도시 범죄 등)에 관심을 가졌다. 나아가 이들은 지속적으로 변해나가는 하나의 유기체적 속성이 도시를 분석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파악하는 한편,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들이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이와 달리 세계체계적 접근은 초국가적인 공간 속에서 연결되는 도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도시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Ru, 2019). 구체적으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등장 이후 등장한 근대화된 도시들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해석하는 데, ② 세계경제 내 도시들 간의 위계화된 연계구조(특히 중심부-주변부라는 서열화된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는)를 설명하는 데, 그리고 ③ 국제적인 상품 및 금융 체계 속에서 확인되는 도시들 간의 그물망과도 같은 연결성을 확인하는 데 세계체계 관점은 많이 활용

1) 구체적으로 퇴니스는 공동사회 속에서 형성된 촌락의 가족생활은 “자신의 심정 전체에 기초한 일치조화”가 중요한 가치인 반면, 이익사회 속에서 형성된 대도시 생활은 “협동과 협약으로 맺어져 있으며”,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다(퇴니스, 2010: 352~353).

되었다.²⁾

다만 이러한 사회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도시에 대한 연구들은 공간성을 이해하는 시도라기보다는, 서구도시사회의 변화를 거대한 사회-경제적 전환(전 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으로 바라보거나 자본주의 세계의 특징을 추적하는 데 보다 집착했다. 한편, 도시생태학의 경우, 이들의 연구영역은 주로 ‘서구 현대화된 도시에서 벌어진 사회문제’에 국한되었다. 관련해 피터 클락(Clark, 2013: 2)은 미국에서 발전한 도시생태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920년대 도시의 일반적인 모델을 구상한 로버트 파크와 시카고학파의 도시연구에서 비교분석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그 연구영역 또한 주로 미국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간을 하나의 중심 테마로 놓고 이를 이론적으로 서술하는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요약하면, 도시의 등장과 변화, 혹은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등을 다룬 사회학적 연구들은 공간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곤 했다.

여전히 공간은 사회이론에서 드물게 소환되는 개념이다. 지배적인 인상은, 전문가

-
- 2) 이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계적 분석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전통적인 세계체계 분석(‘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예컨대 홉킨스와 월러스틴(Hopkins and Wallerstein, 1981: 245)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독특하게 발전된 하나의 사법적·주권적 요소가 국민국가였고, 이러한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야 말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라 가정했다. “근대세계의 주권국가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사회체계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은 서로 접촉하고, 충돌하고,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광범위한 사회집단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이다”(Wallerstein, 1999: 26).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체계연구자들은 ‘도시’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Taylor, Holyer and Smith, 2014: 23).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체계연구자들은 국가보다는 도시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팬레이터는 월러스틴이 자본주의 세계체계 속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해 나가는 도시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Parnreiter, 2014: 235). 비슷한 맥락에서 레셋 카사바 또한 국가에 기반을 세계체계 분석보다 도시를 통해 확인되는 도시-세계체계 사이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Kasaba, 1991: xii).

들은 공간적 현상을 다뤄야 할 의미가 있지만(예로서 건축사회학 또는 도시사회학) 사회, 또는 가정이 될 섞인 용어로 표현해 사회적인 것은 공간이론 없이 대체로 이해 될 수 있다는 것인 듯하다. 즉, 공간들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사회적인 것은 공간적이지 않은 듯하다”(뢰브, 2020: 8)

공간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은 비교역사사회학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도시를 둘러싼 비교역사사회학적 연구들은 늘 논란이 중심에 서곤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도시를 통해 특정 사회의 사회제도, 가치, 나아가 규범적 성격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교역사사회학 내 도시연구들은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관 혹은 진화론적·단선론적 세계관에 빠져 종종 서유럽의 도시발전과정을 하나의 절대적·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다른 비유럽지역들의 도시들을 평가하곤 했다. 물론 사회학자들에게 비교방법론은 ① 중요한 인과적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Skalar, 1990: 1114), ② 두 개 이상의 사례연구를 병치시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Mahoney and Rueschemeyer, 2003) 방법론적 이점을 제공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상정한 비교역사사회학자들의 도시비교연구는 늘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라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연출시켰다. 나아가 서양과 동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만들면서, 전자를 주로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활동적’과 동일시하고 후자를 주로 ‘비합리적, 비이성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서구예외주의를 퍼뜨렸다(강정인, 2003: 37). 특히 근대성과 합리성을 성공이라고 보는 이들에게, 서구유럽의 도시는 근대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요소였고, 유럽도시들의 발전모델이야말로 모든 비유럽사회들이 따라야 할

3) 심지어 에밀 뒤르켐(Durkheim, [1895]1938: 139)은 비교사회학을 가리켜 “사회학 그 자체”라 표현하기도 했다.

성공의 기본조건으로 해석되곤 했다. 후술하겠지만, 베버나 베버주의자들의 인식론적 가정이 바로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에 기반을 둔 비교역사사회학적 접근법은 종종 현대적 시기 혹은 서구도시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띠고 있었기에, 비유럽지역의 도시들과 전근대 혹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를 다루는 데 미흡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교도시연구는 종종 서구의 근대화된 도시에 머물러 있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예외주의적 태도를 띠곤 했다.⁴⁾

유럽중심주의적-일원론적-진화론적 세계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서구중심적이고 현재중심적인(tempocentric) 아이디어들이 주입된 비교역사사회학의 도시연구들로 인해, “장소”에 대한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성찰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렐프, 2001: 310; 최병두, 2002: 258), 본 연구에서는 비교역사사회학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여기에 배태되어 있던 여러 인식론적 독단주의를 확인하려 한다. 이는 칼 만하임이 규정한 지식의 존재제약성(Seinsverbundenheit des Wissens)을 규명하는 작업인 동시에(만하임, 1991: 343), 이를 통해 공간성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려는 나름의 시도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리학에서 강조하는 장소성의 의미 — “물질, 형상, 재질,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 “장소를 둘러싼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물이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총체”(魏寒賓, 2017: 13) — 를 확인하는 작업이자, 타자화된 사람(외부적 힘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가 일방적으로 규정당하는, 그래서 공간에 갇힌 존재)와 소외된 공간지

4) 물론 역사사회학이 아닌 도시사 영역에서 진행된 비교도시사 연구는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해 민유기·박진빈(2007: 369~372)은 1960년대 이래 진행된 도시사 내 비교도시 연구분야를 5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근대적 도시계획의 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개요 및 도시계획의 역사 연구”, “수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비교연구”, “장기적인 혹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도시 대중교통의 형성, 상하수도 체계 등 도시 인프라망의 구축에 대한 비교연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비교도시사 연구”.

리(특정한 인식론 혹은 이론에 의거해 장소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를 연구주제로 포괄하려는 하나의 방법론적 시도이기도 하다.⁵⁾

이를 위해 우선 고전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논의된 도시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들 속에 녹아 있는 한계점들을 해명할 것이다. 이후,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논의된 도시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몇 가지 방법론적·인식론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논의된 도시연구

1)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연구

의심의 여지없이 비교역사사회학에서 서구도시와 비서구도시를(특히 중국 도시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연구한 학자는 막스베버나 베버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연구를 설명하기 이전, 마르크스 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도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선 설명하고자 한다.

베버나 베버주의자들에 비해 마르크스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비교도시연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⁶⁾ 이라 카츠넬슨(Katznelson, 1992: 32~33)이 지적했듯,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경우 서구도시와 비서구도시 사이에서 확인

5) ‘타자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론적 연구로는 정현주(2015)를 참고.

6) 물론 엥겔스의 경우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도시(재)개발계획으로 인해 어떻게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Engels, 1969b: 352~353). 나아가 그는 도시에서의 노동착취 상황이 오히려 프롤레타리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의식을 갖게 하고,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Engels, 1969a: 152). 비록 엥겔스가 근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형성된 도시노동계급들의 생활실태와 주거요건 및 도시노동자들의 계급의식에 대해 언급했지만, 도시공간을 독립된 연구주제로 삼지 않았을뿐더러 비교도시연구 또한 거의 진행시킨 바 없다.

되는 유사점 혹은 대조점을 찾기보다, 도시 내 분업의 진전이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Marx, 1976).⁷⁾ 비슷한 맥락에서 마이클 팀버레이크(Timberlake, 1985: 13)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시연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도시현상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발현된 하나의 일부로 해석했다.” 이러한 평가는 찰스 자넷(Janet, 1983)이나 매튜 에델(Edel, 198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자넷은, —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건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건 간에 —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도시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간주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생산체계에서 만들어진 사회관계 및 기본적 요구조건들과 결합된 의미로서의 도시”(Janet, 1983: 499)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을 뿐이라 지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델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몇 가지 존재양태의 하나로서 도시를 상정했는데, 이때 도시는 자본주의 축적체계(노동력이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혹은 상품유통 및 잉여가치의 실현과 같은 방식으로서)를 가능케 하는 공간적 의미를 띠 뿐이라 주장했다.⁸⁾

물론 1960년대 이후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도시연구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도시공간이 자본가들에게 효율적인 상품생산 및 서비스의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그리고 서로 단절되지 못하는 노동력들의 집합공간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자본가들이 왜 도시공간에 집착하는지를 밝혀냈다(Fainstein and Fainsein, 1979; Sawers, 1975). 이러한 관점은 피에르 부르디

7) 나아가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도시 관련 문제나 도시발전패턴의 경우, 산업자본주의의 등장 이전과 이후를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부터는 소위 “도시의 농촌화”가 아닌 “농촌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명시했다(Marx, 1964: 77~78).

8)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간형태로서 존재하는 근대화된 도시는 자본주의적 통제를 도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본주의적 규율을 따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Gordon, 1978).

외가 생각한 공간에 대한 이해 — “공간적 구조는 특정 집단의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Bourdieu, 1977: 163) — 를 상기시켜 준다. 벤자민 프레이저(Fraser, 2014)는 도시문화(urban culture)가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또 재생산되는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앙리 르페브르(Lefebvre, 1988)와 데이비드 하비(Harvey, 2001)의 논의에서 찾아낸 도시문화적 상황들을 소개하며, 도시문화(예: 예술, 음악, 영화, 건축 등)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소비되는지를 설명했다(Fraser, 2014: xiv~xv). 그뿐만 아니라, 하비(Harvey, 1995)가 지적했듯이, 현대의 도시공간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유지·영속시키는 최적의 장소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발전양식을 위해 언제든지 재구조화될 수 있는 유연한 장소이기도 했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도시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도시공간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Janet, 1983: 500). 또한 네오마르크주의연구자들은 도시빈곤의 문제 및 부의 양극화 문제를 시장 내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기보다, 정치경제체제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며, 이것의 근본적 변화 없이 도시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바라봤다(Tabb and Sawers, 1978: 7).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러한 연구들은 분명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도시공간은 늘 근대화된 혹은 자본화된 공간이었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및 생산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일 뿐이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논의는 주로 다른 비서구지역들보다 일찍 산업화되고 자본화된 서구도시들에 초점이 있었다. 이는 최근 비교역사사회

9) 물론 르페브르의 경우, 도시사회가 산업사회를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자본화된 도시의 중심을 빼앗은 부르주아 계급들에 대항하고 이를 재탈환해야 할 사회운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르페브르의 이러한 시각을 두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 산업사회 내 생산양식을 강조하는 — 을 이탈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학이 나아가려 했던 방향들 — ① 도시를 하나의 독립된 연구주제로 상정하려는 시도, ② 도시를 비교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독특한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발전경로들 제시, ③ 근대이전 등장했던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④ 비서구도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 과 사뭇 달랐다.

2) 베버주의자들이 수행한 비교도시연구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비교할 때, 막스 베버는 다른 시각에서 비교도시연구를 진행시켰다. 우선 베버는 도시를 목가적이고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구별시킨 다음, 도시공간 속에서만이 자본주의와 합리성이 꽃 피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베버에게 도시는 주로 “봉건주의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역인 동시에,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과 시민들의 자주성을 배양”시키는, 그리고 “계산합리성”을 발전시키는 장소였다(Saunders, 1986: 14).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도시공간이 유럽에서만 등장했다고 그는 바라봤다. 유럽문명의 자본주의적 발전사가 유럽도시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 베버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 — 왜 서구에서만 이러한 도시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비서구지역에서는(특히 중국에서는) 자생적으로 도시의 성장 및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는가? — 에 천착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베버는 비교문명론적(서구문명 vs 동양문명), 비교종교학적(서구종교 vs. 동양종교), 비교합리적(탈주술화된 그래서 합리화 및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 vs 주술과 전통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서구지역), 비교도시적(시장을 통해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 및 정체성을 형성한 서구도시 vs 혈족이나 씨족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비서구도시들), 그리고 비교사회적(비인격적이고 형식합리적인 법의 존재를 지향한 서구사회 vs 인격적이고 전통적인 인간관계로 만들어진 비서구사회)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베버의 다양한 비교역사사회학적 연구 가운데 우리는 베버의 비교도시적 관점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베버는 비교도시연구를 통해 합리화의 진전 및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변

해버린 서구의 사회공간에 대한 변곡점을 포착해냈고, 서구와 비서구문명의 거대한 분기를 만들어 낸 주요한 잣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베버는 어떻게 서구도시가 합리적 및 자발적인 사회구성체 및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Weber [1920]1988: 7). 그리고 베버는 왜 하필이면 이러한 서구도시의 특징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주목했다. 히네르크 브룬스(Brühns, 2014)가 주장했듯, 베버의 도시연구에서 주요 질문은 바로 ‘비서구도시에 부재했던 특정한 요인이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서구에서만 발현되었는지?’ 앞의 질문과 연관지어 ‘근대 자본주의가 왜 서구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었는지?’였다.

서구도시와 비서구도시를 구분하는 하나의 이념형적 방식(ideal type)으로서, 베버는(중세) 서구도시가 가지는 특징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우선 서구도시들은 “자체적인 법원과 부분적으로나마 도시를 통치하는 자치적인 법률”이 있었으며, “자발적인 결사체들”에 의해 도시가 운영되었다(Weber, 1958: 81). 특히 중세 서구도시는 근대자본주의의 발전 혹은 그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Weber, [1922]1978: 1323). 그뿐만 아니라 오로지 근대 서구도시에서만 근대자본주의체계를 발전시킨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베버, 2000: 14).¹⁰⁾

서구도시들과 비교해 전근대 중국 도시들은 “도시공동체,” “친족관계로부터 분리,” “시민권” 및 “자치적인 성격을 띠는 정치 및 군사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 전근대 중국에서는 가산제적 정치형태가 발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다.¹¹⁾ 무엇보다 중앙집권적·가산제적 통치구조 속에서 전

10) 이러한 점에서 베버는 서구 도시민들이 독특한 하나의 시민적 종교성을 배태시켰다고 지적하는데, 이 시민적 종교성(bürgerliche religiosität)이 근대 이후 서구의 경제적인 합리성 및 자본주의적 발전을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Weber, 1985: 292).

11) 이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로 하여금 물의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위해 내륙수운(Binnenschiffahrt) 및 관계시설(Bewässerung) 등이 전근대 중국에서 발달했다고 베버는 바라봤다(Weber, [1920]1988: 298).

근대 중국도시는 하나의 행정조직망에 불과하다고 베버는 바라봤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도시의 주체는 시민이 아니라 행정관료이며 도시의 생존목적은 시민의 ‘경제적’ 이익실현이 아니라 관료들의 행정적·정치적 기능수행”에 있었다(전성우, 2013: 494). 그리고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부족했던 중국에서 시민은 물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베버, 2000: 14).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구형 도시의 부재는 비서구권이 근대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 베버는 결론 내렸다.¹²⁾

베버의 이러한 비교도시사 연구는 이후 많은 도시역사가들이나 비교역사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서구도시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서구/비서구 도시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활용되었다(Arrighi, 1994; Barnes, 1939; Braudel, 1979; Cox, 1959; Eberhard, 1956, 1962; Mattingly, 1962; Pirenne, 1951; Postan, 1972). 특히 베버를 포함한 후대의 학자들은 서구의 독특한 도시(혹은 도시국가)의 발전이야말로 유럽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발전시킨 중요한 싹이라 생각했다.

베버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해리 반즈(Barnes, 1939: 156~157)는 서구문명의 거대한 분기가 유럽의 도시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11세기와 14세기 사이에 등장한 유럽의 사회적·경제적 힘은 새로운 도시 문명을 탄생시켰다. 중세 시대 전반에 걸쳐 도시의 부상보다 서유럽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변혁은 없었다. …… 도시에서는 새로운 사회계급인 부르주아지가 등장했다. 상품생산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사회 및 경제조직,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산업 및 상업은 이전에 서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규모를 달성해 냈다.”

양리 피엔느는 중세 서구도시의 발전이야말로 유럽의 봉건제에서 자본주

12) 중국사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전근대 서구와 중국의 도시가 기본적으로 그 형태와 발전방향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Mote, 1973: 36; Li, 1998: 173).

의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핵심요인이라 바라봤다. 베버가 주장했던 것처럼, —“도시 시민들은 봉건영주의 지배(seigniorial domination)와 연결되어 있던 고리들을 끊어버렸다”(Weber, [1922]1978: 1239) — 피엔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세 서유럽) 도시의 공기는 시민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는 처음에 상인들만이 누리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공통의 권리가 되었다”(Pirenne, 1951: 78). 또한 기존의 봉건적 또는 장원적 토지의 영속화된 방식과 달리, 도시에서 제정된 법들은 — 그곳이 독일의 시 행정구역(Weichbild)이든 프랑스의 동네(bourgage)이든 간에 — 모두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었다(Pirrenne, 1951: 79). 그리고 중세 서유럽 도시들은 이러한 뚜렷한 개성에 기초한 법에 기대어 새로운 유형의 “집단적 개인 및 법인”들을 창조해 냈다(Pirenne, 1951: 79). 즉, 중세 서유럽에서만(자발적인) 도시법과 도시민이 형성되었다고 피엔느는 해석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흥을 이끌어냈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올리버 C. 콕스(Cox, 1959: 29) 또한 자본주의체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중세와 근대유럽도시의 특징 및 발전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M. 포스탄의 유명한 어구 — “중세도시는 봉건제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비(非)봉건적인 섬들이었다”(Postan, 1972: 239) — 는 이러한 콕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볼프람 에버하르트(Weber)는 서양 도시의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보여주는 대신, 중국 도시의 기록자료를 분석했다. 그런 다음, 중국 제국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정이 어떻게 서구의 그것들과 구별되는지를 비교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제국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행정중심지”에 그 기반이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제국의 경우, 수도에만 어느 정도 자체적인 행정조직이 있을 뿐, 다수의 중국도시들의 경우 시의회 및 시장 개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도시의 행정은 그 지역행정관(중앙정부에 의해 파견된)과 참모진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에버하르트는 주장했다(Eberhard, 1956: 264). 중국제국의 도시를 ‘행정소재지’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그는 베버의 중국도시에 대한 접근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편, 가렛 매팅리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북부 도시국가들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원형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자원부족으로 인해 15세기 초까지 서유럽사회들은 국가단위의 안정적인 국정운동을 조직·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도시국가가지는 물리적 거리의 단축은(거대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불편함과 대조적으로) 교통과 통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했고, 보다 효과적인 중앙집권화 유지 및 세금징수를 가능케 했다. 외부적으로도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원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을 지녔다고 매팅리는 지적하였는데, 우선 이들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보다 민첩하고도 장기적인 외교관계를 형성·유지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제한된 공간 속에 함께 공존하는 다른 효율적이고 약탈적 성격의 이웃들(도시국가들)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체제를 꾸려나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국가들의 경쟁체제는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자극제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했다(Mattingly, 1962: 59).

서구도시(혹은 도시국가)가 자본주의의 원형이라는 주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페르낭 브로델은 서구도시의 원초적 특성이 “자유로움”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Braudel, 1979: 509~510), 서구도시의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가말로 서구자본주의의 중요한 발아(發芽)라 언급했다(Braudel, 1979: 514). 브로델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서구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역사적 부상과 도시국가 사이의 관계를 해명한 지오반니 아리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구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역사적 기원을 해명하고자, 아리기는 서구도시국가의 부상을 유의 깊게 살폈다. 『장기 20세기』에서 아리기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 주목했다.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가지는 결정적 특징은 자본주의와 영토주의의 끊임없는 반목인데, 이러한 반목을 해결하고자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이끈 국가들은 전 지구적 정치·경제 공간을 조직해냈다. 자본주의와 영토주의의 사이의 이러한 변증법은 법유럽 국가

들 간의 국제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17세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그 기원은 다름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의 자본주의 도시국가 체제였다”(Arrighi, 1994: 36).

요약하면,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혹은 베버주의 연구자 모두 서구도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학문적 업적을 쌓아나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시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축적체제가 생산양식 및 생산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주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도시연구의 대상은 늘 서구도시였고, 그 방식은 내재적인 발전경로(유럽 예외주의에 기반한)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베버주의자들은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서구와 비서구지역의 도시발전 경로를 탐구했다. 이들에게 도시는 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독립된 연구주제였지만, 이들 또한 유럽중심주의라는 인식론적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왜냐하면 베버주의자들 또한 서구도시의 생성 및 발전과정을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아 비서구지역의 도시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3. 한계점: 비교도시연구에 배태된 유럽중심주의와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부족

브로델이 지적했듯(Braudel, 1979: 509), 막스베버 이래 비교(도시)연구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연구테마였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서구와 비서구를 구분하고, 서구도시를 마치 근대성, 합리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맹아로 인식하는데 있었다. 그에 따라 비교도시연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동-서양의 차이를 배태시킨 이유를 찾게 만들었고, 그런 와중에 서구의 역동적인 도시진화모형을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는 단선론적 진화관과 유럽예외주의를 강요했다.¹³⁾

13) 여기에 더해, 베버의 비교연구는 종종 비서구도시들을 일원화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개체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다(Holton, 1986: 119). 그래서 마치 전근대 시기 오랜 기간 동안 비서구도시들은 언제나 서구의 도시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정치적 자율성이 없는 장소로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은 이후 비서구권 도시들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넘어야 할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되었고, 실제 많은 역사가들은 비교도시사에서 가정한 서구중심적 도시진화모델에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중국의 역사가들은 전근대 시기 중국도시에서도 유럽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징들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Abu-Lughod, 1989; Isin, 2003; Goody, 1996; Rowe, 1984, 2013; Yoshinobu, 1970).¹⁴⁾ 이 가운데 로우(Rowe, 1984)는 정면으로 베버의 유럽중심주의적인 비교역사사회학적 관점을 비판한 중국사 연구자이다. 그에 따르면, 18~19세기 한커우(Hankow, 汉口)는 놀라운 상업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도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실제 한커우는 청나라 초기 때부터 별개의 정치적 단위로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한커우는 기존의 정치적 단위인 현단위(prefecture, 縣)와 군단위(county, 郡)수준에서 분리된 개별적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한커우는 베버의 서구도시분석에서 확인되었던 “도시공동체”적 특징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도시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이웃 도시들과의 지역적 연대 또한 발전시켰다. 나아가 한커우 도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자결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또한 가지고 있었다. 도시 자치를 가능하게 한 몇몇 사례들로서, 로우는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길드와 길드연합체를 제시하기도 했다(Rowe, 1984: 339).

중국을 제외한 다른 비서구지역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도시의 발전이 서구의 독특한 유산이라는 논리는 종종 논박되었다. 예컨대 중세 무슬림 세계에서 바그다드와 카이로는 약 200,000~300,000명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들을 보유하고 있었다(Lapidus, 1969: 61). 그리고 이러한 무슬림 세계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도시에는 행정체계, 법, 종교, 그리고 문

인식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알버트 H. 호우라니(Hourani, 1970)가 지적했듯, 이슬람 도시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어 갔다.

- 14) 명·청시기 강남지방의 시진연구는 중국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관련하여 조영현(2011), 傅衣凌(1982), 劉石吉(1987), 樊樹志(1990), 陳學文(2000), 張海英(2002)를 참고.

화 등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다(Cahen, 1970: 521). 또한 도쿠가와 시기(1601~1868), 일본은 중세 유럽 봉건제와 유사한 비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방자치제 또한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도쿠가와 시기에 일본의 사카이(Sakai) 항구는 예수교 선교인들에게 ‘일본의 베니스’라는 호칭을 얻을만큼 상업적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다(Holton, 1986: 134).

다른 한편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근대유럽도시의 흥기를 가능케 한 동양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재닛 아부-루고드(Janet L. Abu-Lughod)는 16세기 유럽도시국가에서 시작된 근대세계체계의 등장에 앞서 13세기 비유럽지역(아시아지역)이 중심이 된 세계경제체계를 제시하면서, 유럽중심적인 세계체계는 바로 13세기 세계경제체계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었다(Abu-Lughod, 1989). 재닛 아부-루고드가 물질문화에서 아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했다면, 주겸지(朱謙之)는 아시아의 물질문화 및 정신문화까지도 유럽대륙 및 도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서술했다. 예컨대 주겸지는 13세기 몽골의 유럽정복 당시 그들이 전파한 중국의 물질문화(예: 인쇄술, 제지, 화약, 나침반)가 유럽 문예부흥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보며, 16세기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배우고 익힌 중국문화가 유럽 계몽운동의 정신적 기초(예: 전례 문제에 대한 논쟁¹⁵⁾)가 되었다고 바라봤다.

이러한 연구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베버를 위시한 비교역사사회학자들의 비교도시사 연구가 얼마나 유럽중심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전근

15)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중국 전도를 할 때 각 수도회에서 바라본 중국의 전통과 습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전례문제의 핵심은 ‘유교를 어떻게 해석하고, 유교적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였다. 관련해 주겸지는 전도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백년에 걸친 중국 전례 논쟁은 사실 중국 사상이 유럽으로 수입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다. 로마 교황이 이단으로 치부한 공자는 불행하게도 예수회의 번역으로 인해 결국 유럽에 소개되었다. 이 이단의 학설이 다행히 전해진 까닭에 유럽 사상계는 하나의 커다란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반기독교·반신학·반종교의 철학적 치포가 이루어져 유럽의 ‘철학 시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주겸지, 2003: 137).

대 비서구도시들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통해 수행된 도시연구들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비서구의 도시공간’과 ‘20세기 이전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했듯,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의 도시연구들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계급관계, 인간관계, 문화적 교류 및 도시 간 수평적 혹은 위계적 질서에 관심을 보였다. 데이비드 하비(2010: 338)가 지적했듯, 자본주의 사회 내 화폐공동체는 자본으로만 매개되는 원자화된 개인으로 바뀌놓았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사회적 연대를 해체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여러 제도들과 가치는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억압시켰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했다.¹⁶⁾ 여기에 더해 도시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특화된 공간으로 이해되었고, 또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도시 간 관계는 서열화된 네트워크 혹은 헤게모니의 전환과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도시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연관성을 살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도시연구는 분명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비서구지역 및 전근대 시기에 대한 부족한 관심은 한계점으로 종종 지적받아 왔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사사회학 내 도시연구에서 확인되는 약점은 공간 자체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사유의 부족이었다. 물론 러브와 같은 사회학자는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생산물과 사회적 행위가 공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결합되는지,¹⁷⁾ 그래서 어떻게 공간에 대한 연구가 역동

16)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욕망하는 생산의 탈규준화한 흐름들을 극한으로서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규준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공리계 속에 묶음으로써 이것들을 몰아낸다”(들뢰즈 & 가타리, 1994: 445)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인간 본연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자본주의 공간으로부터 탈주할 필요가 있다고 들뢰즈와 가타리는 주장한다.

성 구성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역사사회학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4. 대안: 비교역사사회학 내 ‘도시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성 제시

앞서 언급했듯, 비교역사사회학에서 주요 도시연구들은 유럽중심주의라는 장애물과 함께 비서구지역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여기서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럽을 지방화(Provincializing Europe)시키는 한편, 공간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을 제시하려 한다. 다음으로 비서구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부족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연결사(connected history)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에 초점을 두려 한다.

비교역사사회학 내 유럽중심주의적 도시연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는 ‘유럽 지방화하기 전략’을 사용하려 한다. ‘유럽 지방화하기 전략’은 유럽의 팽창을 보편화된 발전과 동일시하는 불문율에서 벗어나 유럽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전략적 방법이다. 나아가 비서구지역의 저발전을 미성숙한 혹은 미완의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생동적인 역사적 사실들과 서사들을 재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유럽지역 바깥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장소들에 대한 사유인 동시에, 유럽중심적 사고로는 재현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동안 보편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전근대적이라고 간주되어진 비유럽지역들의 삶과 기억들을 확인하는 실천적 작업이다.

17) 뢰브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간은 장소들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생산물들과 사람들(생물들)의 관계적 배치이다”(뢰브, 2020: 299).

이러한 유럽을 지방화하기 전략은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에 의해 구체화 되었는데, 그는 유럽 속에 배태된 보편성을 떼어내는 동시에, 근대 유럽이 만들어 낸 보편적인 경제, 문화, 제도 등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차크라바르티, 2018).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는 근대 이후 유럽이 비유럽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럽이 만들어 낸 보편사적 서사를 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근대 세계의 등장 이후 유럽의 팽창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역사적 특징을 가진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유럽이 만들어놓은 근대화된·자본주의화된·서구화된 반듯한 길 위에도 유럽적인 보편성에 포섭되지 않은(비자본주의적이고, 비서구적인) 울퉁불퉁한 비유럽지역들의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 있고, 이를 담아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차크라바르티는 주장한다. 근대 유럽의 팽창이 만들어내는 크리슈나의 수레(Juggernaut)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역사들을 재조명하는 한편, 차크라바르티는 글로벌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은 유럽 문명을 본래 유럽의 자리로 되돌려놓으려 했다.

이러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지방화하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멜파스(2013: 27)가 지적했듯, “누군가가 사회과학의 본질과 한계와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의문을 처리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 동시에 그는 이미 인식론적 탐구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론의 형태에도 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는 이질적인 시공간의 역사적 세계들을 하나의 보편성과 통일성으로 묶기보다,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질감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흔히 소수자들의 역사적 공간을 펼쳐놓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마르틴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가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하다.¹⁸⁾ 인간과 공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진 하이

18) 관련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현존재에는 어떤 세계안에서의 존재라는 것이 본질상 속해 있다”(하이데거, 1992: 37). 그리고 “현존재는 그 자체가 어떤 고유의 ‘공간 내 존재’를 가지는데, 이 공간 내 존재 그 자체로서는 ‘세계 내 존재 일반’이라는 근거에 의거해서만 가

데거는 인간을 현존재(Dasein)라 칭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존재 자체가 자신의 공간과 장소를 드러내는 하나의 특수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 개개인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개별인간들이 모여 만든 수많은 공간들 속에서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 살아간다. 그리고 ‘세계 내 존재’들은 하나로 통일·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소와 역사성을 띠는 개별적 존재가 된다.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 개념은 유럽중심주의와 같은 왜곡된, 도식화된, 그리고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공간연구가 아니라, 인간존재가 살아가는 공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래서 인간 본성을 확인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작업이기에, 유럽을 지방화하는 동시에 비유럽지역에도 유럽과 동등한 공간가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이다.¹⁹⁾

다음으로 비교역사사회학 내 비서구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부족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연결사적 관점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을 강조하려 한다. 얼핏 보기에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에 대한 강조와 반 유럽중심주의적 도시연구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중심주의에 기반한 도시연구들은 종종 유럽사를 보편사로 전환시켰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화는 유럽화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도시들을 연구한 비교역사사회학자들은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고, 전자를 유럽의 가치이자 유산으로, 후자를 비유럽의 특징으로 구분지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팽창을 마치 글로벌 가치의 실현으로 인식하게끔 했다. 그에 따라 유럽식 도시모델이나 발전모델을 택하지 않은 비유럽지역의 도시들은 늘 근대화·자본주의화·산업화를 이룩하지 못한 공

능하다”(하이데거: 1992: 91).

19) 물론 이러한 인문학적 성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들(예: 탈영토적 공간성, 모빌리티에 기반한 간장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비교역사사회학에서 지향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피동적·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요 생성동력이 될 수 있는 연구주제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했다.

간으로 치부되곤 했다. 즉, 글로벌화가 유럽적 도시의 보편화로 치환됨에 따라, 글로벌화 또한 오명을 뒤집어써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화는 어떤 단일한 가치의 일원화, 통일된(혹은 동질화된) 하나의 초국가적인 시·공간, 나아가 단선론적 진화론을 표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화는 이질적인 세계들의 연결이고, 다층적인 역사들의 결합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중적 공간의 겹쳐짐을 특징으로 한다.²⁰⁾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화된 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도시연구는 어떤 친숙하고도 보편적인 도시문화 및 경제조직체를 찾기보다, 낯설고 특이한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세계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점들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는 결과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공간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 사이의 접속점을 연결하면서 그려지는 하나의 실험적 지도인 것이다.

또한 연결사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글로벌화는 총체론적 맥락을 강조한다. 비교역사사회학 내 비서구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는 퍼즐게임이 아니다. 퍼즐게임처럼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만을 채워 넣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 및 전근대 시기 도시와 함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배후지 포함), 국가, 나아가 글로벌 역동성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비서구지역과 전근대 시기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서구 및 전근대 시기 도시를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서 총체론적 맥락이 요구되는데, 연결사에 기초한 글로벌화에 대한 접근은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만족시켜 준다. 관련해, 알렉산더 애니바스와 커럼 니산시오글루는 레프 트로츠키의 이론적 아이디어인 “불균등하지만 서로 결

20)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주장하는 것처럼(Hardt & Negri, 2001) 전지구적 자본 및 노동의 끝없는 유동성과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장소없음(placeness)이 보편화되는 상황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 도시들의 특색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인 글로벌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합되어진 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를 활용해, 어떻게 유럽 및 유럽도시들이 근대 이후 자본주의를 부흥시킬 수 있었는지를 제시했다 (Anievas and Nişancıoğlu, 2015). 주경철(2008)은 말라카 점령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아시아 주요 해양도시들의 역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이는 암스테르담으로 하여금 글로벌 국제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관련해 유럽이 아닌 아시아 도시를 예로 들어보자. 19세기 중국의 대표적인 근대도시인 상하이의 도시변화과정을 설명하려고 할 때, 상하이 도시에 대한 배타적인 관심은 오히려 상하이 도시발전과정을 분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9세기 이래 진행된 상하이 도시발전의 포괄적 그림은 상하이 주변 배후지들과의 관계, 청 정부와의 관계, 나아가 근대 세계경제와의 접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편전쟁 이후 개항된 상하이 이는 중국 내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환적항구(port of transshipment)로의 기능을 담당했다(Keller, Li, and Shiue, 2013: 341). 다시 말해서 상하이 배후지들은 ‘수출지향적 상품을 생산하는 곳’[예: 생사(生絲) 혹은 차(茶)]이었고, 상하이는 ‘수출상품을 배에 싣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체계 내에서 상하이와 배후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 정부는 상하이 및 다른 개항된 항구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나오는 관세(關稅), 그리고 물품 통행세의 일종인 이금세(釐金稅) 등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벌어들였다. 나아가 청 정부는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개항도시에 관료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상인들 및 기업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서 1872년 상하이에 창설된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이 있다. 이처럼 개항 이래 상하이로부터 여러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점에서, 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관상(官商)을 길러냈다는 점에서, 상하이의 근대적·상업적인 도시변화에는 청 정부 또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하이의 도시변화를 주도한 글

로벌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하이-배후지-지역-국가-세계경제 사이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한편, 새롭고도 독특한 접합점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요약하면, 비교역사사회학에서 그동안 한계로 지적받아온 유럽중심주의, 그리고 비서구지역 및 전근대(혹은 전환기) 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① 유럽을 지방화시키기 전략, ②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③ 연결사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과적으로 공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단히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공간 및 공간의 다양한 연결점들을 강조한다.

5. 결론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도시’는 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분야였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근대의 소산(所産)임을 상기해 볼 때, 그리고 근대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된 공간의 탄생 및 성장’임을 고려해 보면, 비교역사사회학 내에서 도시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 연구주제였는지를 쉽사리 짐작해 볼 수 있다.²¹⁾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비교역사사회학 분야에서 도시를 핵심 주제로 삼은 연구들은 그 중

21) 김백영(2016: 321~322)이 지적했듯, 도시연구는 다양화된 분과학문들[“도시사, 도시사회학, 도시지리학, 도시인구학, 도시경제학, 도시정치학, 도시인류학, 지역(사회)학, 문화(사회)학, 사회계층론, 산업사회학, 가족사회학, 여성학,(지방)행정”]로 가지를 뻗어나갔고, 도시 자체가 가지는 실천적/현실적 성격으로 인해 학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행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요성만큼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도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비교역사학적 혹은 문명론적 연구를 시도한 막스베버에서부터 도시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가정한 세계체계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늘 상반된 관점이 뒤섞인 채로 이해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비교역사사회학 내 도시 연구들은 유럽중심주의, 유럽예외주의, 그리고 비서구권(혹은) 전근대 시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학문 연구자들도 부터도 큰 도전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을 지방화하기 전략’과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비서구권 및 전근대 시기 도시연구를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연결사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을 제시했다. 유럽의 지방화하기 전략과 인문학적 성찰은 서구화되고 근대화된 세계에 포섭되지 않은 독특하고도 개성 넘치는 도시공간 및 장소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또한 도식화되고 일원화되어 있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인식론적·실천적 위계로 점철되어 있는 유럽중심의 공간 및 장소개념에서 벗어나, 비유럽이라 지칭되는 구성적 외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어떻게 비유럽지역의 공간들이 비선형적이고도 창발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확인케 한다. 나아가 연결사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은 민족이나 민족 형식의 경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도시사에 담아내지 못한 차이들과 그 차이들의 다양한 결합양태(우발적 결합 및 불안정한 연결점들을 포함하는)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론을 선사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다층적인 연결점들을 포괄하는 총체적 맥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작동체계 및 그 발전경로에 대한 정교화고도 종합적인 분석을 우리들에게 제공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공간과 타자를 새롭게 인식하게끔 만든다. 즉, 장소를 인간 존재의 중심이자 생활공간으로 규정하고 타자(여기서는 비유럽도시 혹은 전근대적인 도시를 지칭)를 연구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법론적 실험인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명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논의된 유럽중심주의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구 지역의 도시를 설명할 때에도 그 한계점을 명백히 보여주지만, 본 논고에서는 주로 중국 도시만을 다루었다. 근대 이전, 여러 비서구권의 도시들은 나름의 발전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상업 및 문화를 꽃피웠다. 예컨대 16세기 이전 스와힐리 도시국가는 국제교역의 중심지로서 세계체계의 중심부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중심부 역할을 담당했다(장용규, 2014). 다른 예로서 10세기 때 중동지역의 대표적 항구였던 소하르, 12~13세기 인도 구자라트 지역 및 벵골만 지역, 13세기 캘리컷(현 인도의 코지코드), 13~15세기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 등도 중요한 국제교역의 거점지이자 글로벌 해양도시들이었다(Abu-Lughod, 1989; Mielants, 2007). 둘째, 비유럽지역의 도시들이 어떻게 글로벌 역사와 연계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다채롭게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비유럽 도시들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강조했기에, 상대적으로 비유럽지역의 도시들이 어떻게 글로벌 역사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²²⁾ 이러한 한계점들은 이후 진행될 새로운 연구과제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해, 향후 연구에서는 ①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다루지 못한 비유럽지역 도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도시사, ② 비유럽 도시 간 그리고 유럽-비유럽 도시 간 지구사적-연결사적 관점들을 활용해 보다 다면체적인 도시변천사를 제시하려고 한다.

원고접수일: 2022.05.22.

심사완료일: 2022.06.23.

게재확정일: 2022.06.24.

최종원고접수일: 2022.06.27.

22) 예컨대 라세 헨텐(Heerten, 2021)은 스티븐진의 발명과 그로 인해 연결된 해양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한편, 어떻게 전 세계 항구도시들이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The Concept of City Seen from a Marxist and
Weberian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Overcoming Eurocentrism and a New Approach to Space**

Ru Sung Hee

In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categorized as a sub-discipline within sociology, urban studies have often been the subject of debate. This is due mainly to the lack of research on non-Western or premodern cities and Eurocentric perspective. In this study, I introduced the Marxist and Weberian approach, which were conducted under the name of (comparative) urban studies, and then showed their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drawbacks. Afterwards, as an alternative to Eurocentrism, I presented 'provincializing Europe', and 'humanistic reflection on the space.' Indeed, as a strategy to make up for the lack of urban research in the non-Western and pre-modern areas, I introduced 'global urban dynamics based on connected histories.' Given that these alternatives enable us to use idiographic approach and thick descriptions of non-European and premodern cities and look at various aspects of inter-city connectivity in a macroscopic and holistic context, it will shed valuable light on the comparative urban studies.

Keywords: city,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provincializing Europe, connected histories, humanistic reflection on the space

참고문헌

- 강정인. 2003. 「서구중심주의의 이해: 용어 및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집 3호, 29~51쪽.
- 김백영. 2016. 「도시의 사회사」. 『사회사/역사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320~349쪽.
- 들뢰즈, 질(Deleuze Gilles) &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 199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최명관 옮김. 서울: 민음사.
- 뢰브, 마티나(Löw, Martina). 2020. 『공간사회학: 물질성·구조·행위의 상호작용』 장유진 옮김. 공주: 제르미날.
- 렐프, 에드워드(Relph, Edward). 2001. 「장소감」. 『세상을 변화시킨 열가지 지리학 아이디어』. 구자용 외 옮김. 파주: 한울, 305~339쪽.
- 만하임, 칼(Mannheim, Karl). 1991.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옮김. 청아출판사.
- 민유기·박진빈. 2007.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비교도시사 현황 연구」. 『공간 속의 시간: 유럽, 미국, 동북아 도시사 연구 현황과 전망』. 서울: 심산출판사, 369~387쪽.
- 멜파스, 제프(Malpas, Jeff). 2013. 「공간의 제자리: 철학적 지형학과 관계적 지리학」.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류지석 엮음. 서울: 소명출판, 15~53쪽.
- 베버, 막스(Weber, Max). 200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魏寒實. 2017. 「중국인 밀집지역의 장소성 형성요인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 리봉동과 대림 2동 조선훈 밀집지역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장용규. 2014. 「16세기 이전 인도양 교역과 스와힐리 경제권의 형성」,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43집, 169~183쪽.
- 조영현. 2011. 『대운하와 중국상인: 회양 지역 휘주 상인 성장사, 1415-1784』. 서울: 민음사.
- 주경철. 2008.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검지. 2003.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근대 유럽의 중국문화 열풍』. 전홍석 옮김. 서울: 청계.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의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시대' '역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집 3호, 289~303쪽.
- 전성우. 2013. 『막스베버 사회학: 연구논문집』. 파주: 나남.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Chakrabarty, Dipesh). 2018. 『유럽을 지방화하기』. 김택현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집, 253~278쪽.
- 퇴니스, 페르디난트(Tönnies, Ferdinand). 2010.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광노안·황기우 옮김. 서울: 라움.
- 하비, 데이비드(Harvey, David). 1995. 『자본의 한계』. 최병두 옮김. 서울: 한울.
- _____. 2010. 『파리 모더니티』. 김병화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하이데거, 마르틴(Heidegger, Martin). 1992. 『존재와 시간』. 전양범 옮김. 서울: 시간과공간.

傅衣凌. 1982. 『明清社會經濟史論文集』. 北京: 人民出版社

樊樹志. 1990. 『明清江南市鎮探微』.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劉石吉. 1987. 『明清時代江南市鎮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海英. 2002. 『明清江南商品流通與市場體系』.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陳學文. 2000. 『明清時代太湖流域的商品經濟與市場網絡』.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Abu-Lughod, Janet L.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ievas, Alexander and Keren Nişancıoğlu. 2015. *How the West Came to Rule: The Geopolitical Origins of Capitalism*. London: Pluto Press.

Arrighi, Giovanni.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Verso.

Barnes, Harry. 1939. *An Economic History of the Western World*. New York: Harcourt and Brace Company.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R.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udel, Fernand. 1979.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Civilization &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ume 1*.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Bruhns, Hinnerk. 2014. "Does Max Weber's Occidental City have a Future." *eutopia* (online magazine). <http://eutopiamagazine.eu/en/hinnerk-bruhns/issue/does-max-webers-occidental-city-have-future>.

Cahen, Claude. 1970. "Islamic society and civilization: economy, society, institutions." in P. Hort et al., *The Cambridge History of Islam*, Vol. 2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11~538.

Clark, Peter. 2013. "Introduction." in Peter Clark (ed.), *The Oxford Handbooks of Cities in Worl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24.

Cox, Oliver C. 1959. *The Foundations of Capitalism*.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Durkheim, Emile. [1895]1938.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berhard, Wolfram. 1956. "Data on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city in the Pre-Industrial Period."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 No.3, pp.253~268.

Eberhard, Wolfram. 1962 *Social Mobility in Traditional China*, Leiden: E. J. Brill.

Edel, Matthew. 1981. "Capitalism, accumulation, and the explanation of urban phenomenon." in M. Dear and A. Scott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Methuen, pp.19~44.
- Engels, Friedrich. 1969a.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St. Albans: Panther Books.
- Engels Friedrich. 1969b. "The Housing Question." in *K. Marx and F. Engels Selected Works*, vol. 2. Moscow: Progress Publishers.
- Fainstein, Norman I and Suan S. Fainstein. 1979. "New Debates in Urban Planning: The Impact of Marxist theory with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 No.3, pp.381~403.
- Fraser, Benjamin. 2014. "Introduction: What is Urban Culture?" in Benjamin Fraser (ed.), *Marxism and Urban Culture*, Plymouth: Lexington Books, pp.xiii~xxvii.
- Goody, Jack. 1996. *The East in the We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rdon, David M. 1978.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 History of American Cities." in William K. Tabb and Larry Sawers (eds.), *Marxism and the Metropolis: New Perspectives in Urban Political Revi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5~63.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1.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2001. *Spaces of Capital: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New York: Routledge.
- Heerten, Lasse. 2021. "Mooring Mobilities, Fixing Flows: Towards a Global Urban History of Port Cities in the Age of Steam."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Vol.34, pp.350~374.
- Hopkins, Terence K, and Immanuel Wallerstein. 1981.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the World-Economy." in Richard Rubinson (eds.), *Dynamics of World Development*, Beverly Hills, CA: Sage, pp.233~262.
- Holton, R. J. 1986. *Cities, Capitalism, and Civilization*. London, Boston, and Sydney: Allen & Unwin.
- Hourani, Albert H. 1970. "The Islamic city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in Albert H. Hourani and S. Stern (eds.), *The Islamic City*, Oxford: Bruno Cassirer, pp.9~24.
- Isin, Engin F. 2003. "Historical Sociology of the City." in Gerard Delanty and Engin F Isin (eds.), *Handbook of Historical Soci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pp.312~325.
- Janet, Charles. 1983. "Recent Neo-Marxist Urban Analysi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9, pp.499~525.
- Kasaba, Reşat. 1991. "Introduction." in Reşat Kasaba (ed.), *Cities in the World-System*, New York, Westport, and London: Greenwood Press.

- Katznelson, Ira. 1992. *Marxism and the City*. Oxford: Clarendon Press.
- Keller, Wolfgang., Ben Li, and Carol H. Shiue. 2013. "Shanghai's trade, China's growth: Continuity, Recovery, and Change since the Opium War." *IMF Economic Review* Vol.61, No.2, pp.336~378.
- Lapidus, Ira M. 1969. "Muslim cities and Islamic societies." in I. M. Lapidus (ed.), *Middle Eastern Cit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47~79.
- Lefebvre, Henri. 1988. "Toward a Leftist Cultural Politics: Remarks Occasional by the Centenary of Marx's Death." in Lawrence Grossberg and Cary Nelson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75~88.
- Li, Bozhong. 1998. *Agricultural Development in Jiangnan, 1620-1850*.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Press.
- Mahoney, James and Dietrich Rueschemeyer. 2003.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chievements and Agendas."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40.
- Marx, Karl. 1964.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Marx, Karl. 1976. *Capital*(vol 1), Harmondsworth: Penguin,
- Mattingly, Garrett. 1962. *Renaissance Diplomacy*. London: Cape.
- Mielants, Eric H. 2007. *Origins of Capitalism and the Rise of the West*.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Mote, F. W. 1973. "A millennium of Chinese urban history: form, time and space concepts in Soochow." in Robert A. Kapp (ed.), *Rice University Studies: Four Views of China (Rice)*, Vol.59, No.4, pp.35~65.
- Park, Robert 1915.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Behaviour in the City Environ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20, No.5, pp.577~612.
- Park, Robert and Ernest Burgess. 1921.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nreiter, Christof. 2014. "Global Cities, global commodity chains and the geography of core-ness in the capitalist world-system." in Salvatore J. Babones and Christopher Chase-Dunn (eds.), *Routledge Handbook of World-Systems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231~238.
- Pirenne, Henri. 1951. "Medieval Cities." in *Reader in Urban Sociology*, Paul K. Hatt and Albert J. Reiss, Jr (ed.), Illinois: The Free Press, pp.74~82.
- Postan, M. M. 1972.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Pelican.

- Rowe William T. 1984. *HANKOW: Commerce and Society in a Chinese City, 1776-188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we, William T. 2013. "China: 1300-1900." in Peter Clark (ed.), *The Oxford Handbooks of Cities in Worl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310-327.
- Ru, Sung Hee. 2019. "Mapping transformation of nineteenth-century Chinese Cities within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Comparative Sociology* Vol.18, No. 5-6: pp.822~848.
- Saunders, Peter. 1986.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2nd edition, London: Hutchinson.
- Sawyers, Larry. 1975. "Urban Form and the Mode of Produc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7, No.1, pp.52~68.
- Sklar, Kathryn Kish. 1990. "A Call for Comparison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95, No.4, pp.1109~1114.
- Tabb, William K and Sawyers, Larry. 1978. "Editor's introduction." in William K. Tabb and Larry Sawyers (eds.), *Marxism and the Metropolis: New Perspectives in Urban Political Revi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19.
- Taylor, Peter J, Michael Hoyler and Dennis Smith. 2014. "Cities in the making of world hegemonies." Ben Derudder, Michael Hoyler, Peter J. Taylor, and Frank Witlox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pp.22~30.
- Timberlake, Michael. 1985. "The world-system perspective and urbanization." in Michael Timberlake (ed.), *Urbanization in the World economy*, Orlando, FL: Academic Press, pp.3~22.
- Wallerstein, Immanuel. 1999.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in Timothy Brook and Gregory Blue (eds.), *China and Historical Capitalism*,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56.
- Weber, Max. 1958. *The City*. Translated and edited by Don Martindale and Gertrud Neuwirth, New York: The Free Press.
- Weber, Max. [1922]1978. *Economy and Societ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Illinois: The Free Press.
- Weber, Max 1985.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 Weber, Max. [1920]1988.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 sozologie I*.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 Yoshinobu, Shiba. 1970. *Commerce and Society in Sung China*. Translated by Mark Elvin,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